

연민확장성이 연민붕괴에 미치는 영향*

이 나 라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연민확장성이 연민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민확장성은 연민의 대상이 가족과 같은 좁은 대상을 넘어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이나 존재로 까지 확장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연민붕괴는 연민대상이 늘어나면 연민심과 도움의도, 도움행동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민붕괴가 연민확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전체적인 연민수준이 높은 대학생 중에서 연민확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성해서 연민대상의 수(1명, 8명)에 따른 연민심과 도움의도, 도움행동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연구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연민대상의 수에 따른 연민심과 기부의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부행동의 경우, 저확장성 집단에서는 연민대상수에 따른 연민붕괴가 나타났지만, 고확장성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한된 연민의 경우, 심리적인 연민심과 도움의도가 행동과 덜 일치하지만, 대상에 따른 연민심의 차이가 적은 확장된 연민의 경우는 심리적인 연민심과 도움의도가 실제 행동과 더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민의 대상을 확장하는 자비명상과 같은 수련이 이타행동에서 나타나는 연민붕괴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연민, 연민확장성, 연민붕괴, 연민심, 도움의도, 이타행동

* 이 논문은 이나라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토대로 김완석이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김완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442-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Tel : +82-31-219-2769, E-mail : wsgimajou@gmail.com

연민(compassion)은 타인의 고통을 보았을 때 발생하는 정서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동기화시킨다(Goetz, Keltner, & Simon-Thomas, 2010). Gilbert(2005)에 따르면, 연민은 자기와 타인의 고통을 비방어적이고 비판단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통을 완화시켜주려는 욕구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인지, 그리고 연민심을 동반한 행동을 포함한다. 즉,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그 고통을 완화하려는 동기가 포함된 보다 적극적인 태도이며, 자신과 가까운 사람 뿐 아니라 잘 모르는 타인에게까지 확장된 이타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다(박도현, 김완석, 2015).

이렇듯 연민은 타인이 고통스러워 할 때 그 고통을 완화하려는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임에도 불구하고(Buddhaghosa, 2004), 타인의 고통에 대해 오히려 연민이 무뎌지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Kogut와 Ritov(2005)의 연구에서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1명일 때에 비해 8명으로 다수일 때는 연민심과 동정심을 덜 느끼고 기부의도도 덜하며, 실제 기부한 금액도 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희생자가 2명일 때는 1명일 때에 비해 기부의사가 낮고 실제 기부금액도 적었다(Västfjäll, Slovic, Mayorga, & Peters, 2014).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의 수가 증가 할수록 연민심, 기부의도, 기부행동이 감소하는 현상을 “연민붕괴” (the collapse of compassion, Cameron & Payne, 2011; Västfjäll, Slovic, Mayorga & Peters 2014)라고 한다.

달라이 라마(2002)는 연민을 연민대상의

확장수준에 따라 일반적인 연민(ordinary compassion)과 참된 연민(real compassion)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인 연민은 혈연이나 친소관계에서 가까운 타인(가족, 친구)에게만 연민심을 느끼고 도움행동을 하는 것으로, 문화나 인종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반해, 참된 연민은 친밀한 타인 뿐 아니라 중립적인 사람, 나와 관계없는 잘 모르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연민을 느끼고 도움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으로서 일반적인 연민에 비해 훨씬 확장된 수준의 연민을 말한다.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참된 연민은 불교의 자비심을 뜻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핵심 덕목인 아가페적 사랑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연구된 바는 없지만, 일반적 연민과 참된 연민에 관한 설명을 토대로 연민붕괴라는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즉, 연민붕괴는 참된 연민보다는 일반적인 연민을 가진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참된 연민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의 친소관계나 연민대상의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연민을 가진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나와 관계가 없고 그러한 대상이 다수(심리적,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일 경우, 참된 연민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그들에게 연민심을 덜 느끼고 덜 도와주려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연민붕괴는 일반적인 연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참된 연민을 가진 사람들에서는 연민붕괴가 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연민붕괴 연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문제는 연민심과 연민행동의 구분이다. 불교의 연민개념은 이들 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반해, 괴로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도우려는 의도와 실제 도움행동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감과 도움 의도는 심리적 반응으로서, 대상의 수나 자신이 희생하거나 제공해야 할 구체적 능력이나 부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실제 도움행동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게 된다. 따라서, 연민심과 도움의도로 측정한 연민붕괴는 연민대상의 수와 관계가 없지만, 도움행동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개인차 변수로서 연민의 확장 정도에 따라 연민붕괴의 정도가 달라질 것인지, 달라진다면 그것이 연민대상에 대해 연민심과 도움을 주려는 정도, 그리고 실제 도움행동과 같은 종속변수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지를 연민붕괴 실험의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검증하려는 것이다.

연민확장성

달라이 라마(2002)가 설명한 일반적인 연민과 참된 연민의 구분에 관해, Gilbert(2005)는 “일반적인 연민은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연민으로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가족, 친구)에게 경험되며, 참된 연민은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장 확장된 형태의 연민”이라고 설명하였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란 참된 연민으로

서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심성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본성이다. 자비심의 계발을 위한 실제 수련에서는 자비의 대상은 자신, 가족과 친척, 친구, 잘 모르는 중립적인 다른 사람, 모든 다른 사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의 순으로 확장되며, 나아가 모든 생명있는 존재와 생명없는 존재로 까지 확장하면서 자비심을 키우게 된다(Buddhaghosa, 2004).

따라서, 자비심은 자비의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차별의 크기를 통해 참된 자비심이 얼마나 계발되었는지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지에 대해서는 강한 자비심을 갖지만 그 외의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 참된 자비심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대상에 따른 자비심에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참된 자비심이 거의 완전하게 계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연민심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된 정도”로 정의함으로써 연속변인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민확장성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했다.

연민확장성은 Sprecher와 Fehr(2005)가 개발한 연민적 사랑척도(CLS: Compassionate Love Scale)를 김완석과 신강현(2014)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아주연민사랑척도(ACLS; Ajou Compassionate Lov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척도가 가족이나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친지판과 낯선 사람이나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인 판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 두 가지 점수를 이용해서 대상

에 대한 연민의 정도 뿐아니라 연민확장성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척도에서 점수가 모두 높으면서 척도 점수의 차이가 작은 사람들은 연민확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친지판 점수는 높으면서 일반인판 점수는 낮으며 동시에 그 차이가 큰 사람들은 연민확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연민붕괴

연민붕괴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의 수가 증가 할수록 연민심, 기부의도, 기부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소하는 현상이다.

Slovic(2007)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한 개인에게 강한 연민심을 경험하며 이 연민심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로 전환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일 경우 사람들은 다수에게 정서를 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도움행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수에 대한 연민심 및 도움행동이 한 개인에 대한 연민심 및 도움행동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Kogut & Ritov, 2005; Cameron & Payne, 2011; Västfjäll, Slovic, Mayorga, & Peters, 2014). 그 예로, Cameron과 Payne(2011)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1명의 아이 조건과 8명의 아이들 조건에 무선향당한 뒤, 대상에 대한 연민심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8명의 아이들 조건의 참가자들 보다 1명의 아이 조건의 참가자들이 대상에 대한 더 많은 연민심을 보고하였다.

연민붕괴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적 관점에는 표상이론과 동기화된 정서조절 이론이 있다. 먼저, 표상이론은 연민붕괴가 한 개인과 다수의 표상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Hamilton과 Sherman(1996)은 한 개인은 다수 보다 통합되고, 일관성 있고, 구조적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상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지각될 때 사람들은 좀 더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지각하여 관점 취하기가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공감정서(연민심, 동정심)를 경험하게 된다(Kogut & Ritov, 2005). 즉 표상이론은 연민붕괴를 다수의 표상이 한 개인의 표상에 비해 정서를 덜 촉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다. 그러나 Cameron과 Payne(2011)의 연구에서 한 개인과 다수의 사진·이름·나이를 제시하여, 한 개인과 다수의 표상 차이를 통제하였음에도 사람들은 다수에 비해 한 개인에게 더 많은 연민심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연민붕괴의 원인을 단순히 표상 차이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편, 동기화된 정서조절이론은 연민붕괴가 사람들이 다수에 대해 연민심을 느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동기화될 때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정서조절을 동기화시키는 원인에는 재정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이 있다. 사람들은 도움행동을 실질적인 재정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지각할 때, 도움행동을 하지 않기 위하여 도움행동을 일으키는 연민심을 적극적으로 회피한다(Shaw, Baston, & Todd, 1994). 그 예로 Cameron과 Payne(2011)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기부요청(재정적 비용)을 받았을 경우에는 희생자가 1명인 조건의 참가자들이 8명

인 조건의 참가자들 보다 더 높은 연민심을 보고 하였다. 반대로 기부요청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8명 조건의 참가자들이 1명 조건의 참가자들 보다 더 높은 연민심을 보고하였다. 또한 8명 조건의 참가자들은 기부요청을 받았을 때 보다 받지 않았을 때 유의하게 더 높은 연민심을 보고하였다. 이런 재정적 비용과 더불어, 심리적 불편감, 심리적 소진과 같은 심리적 비용도 정서조절을 동기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수의 고통에 대한 강한 정서경험이 예상되고 스스로가 그 정서를 대처할 수 없어 압도될 것이라고 예상될 때, 강한 정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정서를 조절하며(Lazarus & Folkman, 1984), 그 결과 연민심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연민붕괴 선행연구들의 한계점

선행연구들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대상 수(1명, 다수)를 집단간 변인으로 설계하여, 참가자들을 1명 조건과 다수 조건에 무선할당 하였다. 각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처해있는 상황과 사진을 보여준 뒤, 각각의 연구들은 연민심 또는 기부의도와 기부행동 또는 세 가지 모두를 측정하였다(Kogut & Ritov, 2005; Small, Loewenstein, & Slovic, 2007; Cameron & Payne, 2011; Västfjäll, Slovic, Mayorga, & Peters, 2014). 둘째, 선행 연구들은 연민붕괴의 조작적 정의에서도 차이가 있다. Kogut와 Ritov (2005)은 연민붕괴를 1명에 비해 다수에 대한 연민심, 기부의도,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고, Cameron과 Payne(2011)은 1명

에 비해 다수에 대한 연민심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Västfjäll 등(2014)은 1명에 비해 다수에 대한 기부의도와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민붕괴의 실험설계 및 개념화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선행 연구들은 대상 수(1명, 다수)를 집단간 변인으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1명에 비해 다수에게 연민심, 기부의도, 기부행동이 감소하는 것은 개인내의 심리과정인지 개인간의 심리과정인지 아니다. 즉, 선행연구들의 실험설계는 연민붕괴의 개인내 심리과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수(1명, 다수)를 집단내 변인으로 설계하여, 연민붕괴가 발생하는 개인내의 심리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행연구들은 연민붕괴를 연민심, 기부의도, 기부행동 중 일부를 가지고 개념화하였으며, 연민심, 기부의도, 기부행동 모두에서 연민붕괴가 발생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연민붕괴는 연민의 구성요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연민심 즉, 불행을 겪는 다른 존재를 볼 때 경험하는 슬픔, 불쌍함 같은 정서는 대상의 수와 무관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와주려는 의도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도움행동은 정서나 의도와 달리 실행성의 제약이 있어서, 대상의 수와 구체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따라서, 대상의 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인 부담(cost)을 크게 느낄 수 있고(금전적 기부의 경우), 또한 동일한 경제적 도움의 효과에 대한 지각도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연민심과 기부의도에서도

연민붕괴가 관찰되었는데(Kogut & Ritov, 2005; Cameron & Payne, 2011; Västfjäll, Slovic, Mayorga, & Peters, 2014), 이는 이 연구들이 참여자의 피험자간 설계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연구참여자의 연민확장성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즉, 연민확장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대학생들에 비해 연민대상자의 수에 따른 연민붕괴가 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처럼 대상 수(1명, 다수)변인을 집단내 변인으로 설계했을 경우, 연민심과 기부의도 보다는 기부행동에서 연민붕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연민붕괴는 연민확장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확장성이 클수록 연민붕괴가 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연민확장성에 따라 집단을 고확장성 집단과 저확장성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고확장성 집단과 저확장성 집단 모두 연민심과 기부의도에서 연민대상자의 수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 저확장성집단은 연민대상이 1명인 조건일 때 다수인 조건에 비해 기부행동이 감소할 것이지만, 고확장성 집단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참가자 선발 및 집단 구성

경기도 소재 A대학교 학부생 271명에게 아주연민사랑척도 친지판(대상: 가족, 친구)과 일반인판(대상: 나와 관계없는 잘 모르는 사람, 모든 존재)을 시행하여 친지판 점수와 일반인판 점수 그리고 친지판 점수에서 일반인판 점수를 뺀 차이값을 계산하였다. 이들 중에서 친지판 점수(상위 50%)와 일반인판 점수(상위 30%)가 둘 다 높고, 두 척도간의 점수 차이가 작은 사람들(하위 40%)을 고확장성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친지판 점수는 높으나(상위 50%) 일반인판 점수는 낮고(하위 30%) 그리고 두 척도간의 점수 차이가 큰 사람들(상위 20%)을 저확장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참여를 권하였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로 두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고확장성 집단 19명(남성 3명, 여성 16명)과 저확장성 집단 16명(남성 9명, 여성 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 선발도구

Sprecher와 Fehr(2005)가 개발한 연민적 사랑척도(CLS; Compassionate Love Scale)를 김완석과 신강현(2014)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아주연민사랑척도(ACLS; Ajou Compassionate Love Scale)를 사용하였다. 아주연민사랑척도는 대상에 따라 친지판과 일반인판이 있으며, 단일요인, 12문항 그리고 7점(1~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친지판 신뢰도는 Cronbach α =

.913, 일반인판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8$ 이었다.

측정 도구

연민심

Cameron과 Payne(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최훈석 등(2012)이 번안하고 이고은(2013)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9문항,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1명 조건에서 .911, 8명 조건에서 .873이었다.

기부의도

‘당신은 사진 속 대상(1명, 8명)에게 기부할 의향이 있습니까?’하는 문항에 대해 1점(전혀 아니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부행동

본 연구에서는 기부행동을 각 대상(1명, 8명)에 대한 기부금액으로 측정하였다.

참가자에게 참가사례비로 15,000원을 지급한 뒤, 실험과정에서 1명 조건의 경우 15,000원 까지 기부할 수 있게 하였고, 남은 금액은 자신이 갖도록 하였다. 8명 조건의 경우는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참가사례비 15,000을 넘어 따로 자기부담으로 추가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8명 조건의 경우 사례비를 모두 기부해도 1인당 수혜금액은 2,000원 정도에 불과해서 참여자들이 기부의 실효성을 너무 낮게 지각하여 기부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연민확장성(고/저)과 연민대상수(1명/8명)를 조작하는 2 X 2 혼합설계로, 연민확장성은 집단간, 연민대상수는 집단내 변인이었다.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내용과 실험절차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도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연민심, 기부의도, 기부행동을 측정하는 실험이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익명성 보장을 중요시 하였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실험임을 인지시키고, 설문에 솔직하게 답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실험에 관한 설명을 마친 후, 실험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참가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였다. 실험참여 동의를 한 참가자들에게 1명 조건과 8명 조건의 실험에서 각기 15,000원씩 지급하였다.

각 조건의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참가비로 15,000원을 1000원 권으로 지급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컴퓨터 스크린으로 연민대상이 처한 힘든 상황에 대한 글을 제시하고 해당 연민대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연민대상에 대한 정보는 Cameron과 Payne(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을 최훈석 등(2012: 이고은, 2013에서 재인용)이 번안하여 희생자에 대한

동정심 연구에 사용한 것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연민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장기적인 내전으로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 관한 것이었다.

연민대상의 사진은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 사진을 사용했고, 각 대상의 표상구체성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아동의 사진에는 이름과 나이를 표기하였다. 1명조건과 8명 조건 모두 사진제시시간은 1분으로 하였고, 1명 조건에 대한 노출과 종속변인 측정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8명 조건에 노출하고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1명 조건에 대한 노출이 끝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어린이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한 번 더 상상해보도록 요청한 후에 그 어린이에 대한 연민심, 기부의도, 기부행동을 측정하였다. 이어서, 어린이 8명 조건에 대한 노출이 끝나면, 이들 어린이에 대한 정보와 얼굴을 상기하도록 한 후에 이들 어린이들에 대한 연민심과 기부의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기부행동은 8명이 아니라 이들 중 5명은 이미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이 중 3명에 대해서만 금전적 기부를 하도록 하였다.

기부행동은 생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각자기 기부한 금액은 실제 기부단체에 기부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또한, 실험장면과는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개인별로 한 사람씩 기부함에 각자 실제 기부금액을 넣도록 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실험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또한 실험 중에 지급했던 참가비는 기부를 위한 실험장치였다고 설명한

뒤, 모든 참가자들에게 일괄적으로 7천원 상당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기부상황이 실험을 위한 장치였으나, 참가자들이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기부하였던 금액의 일부는 실제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의 사진들이 불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기 때문에, 원하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실험을 마쳤다. 실험 소요 시간은 평균 40분 정도였다.

결 과

연민확장성과 대상 수에 따른 연민심, 기부도, 기부행동의 차이 검증

각 집단별 대상 수에 따른 종속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2는 연민심, 표 3은 기부의도, 표 4는 기부행동에 대한 혼합 변량분석 결과이다.

첫째, 연민심의 경우, 집단의 주효과($F=14.689, p<.01$)는 유의한 반면, 대상 수의 주효과와 대상 수와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기부의도의 차이 검증결과, 집단의 주효과($F=8.417, p<.01$)는 유의한 반면, 대상수의 주효과와 대상 수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기부행동의 경우, 대상 수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F=4.370, p<.05$)는 유의한 반면, 집단의 주효과와 대상 수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표 1. 각 집단별 대상 수(1명, 다수)에 따른 종속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연민확장성 집단	1명			다수		
		<i>n</i>	<i>M</i>	<i>SD</i>	<i>n</i>	<i>M</i>	<i>SD</i>
연민심 (1명, 8명)	고	19	55.63	3.58	19	56.29	4.02
	저	16	49.40	5.74	16	51.31	6.19
기부의도 (1명, 3명)	고	19	5.58	1.31	19	5.37	1.38
	저	16	4.00	1.46	16	4.19	1.72
기부행동 (1명, 3명)	고	19	8157.89	5166.81	19	9087.72	11453.53
	저	16	6625.00	5690.64	16	2812.50	2190.78

주. "기부행동(3명) : 3명에게 기부한 총 금액을 1인당으로 계산=(15,000원 중 기부금액 + 추가 기부금액)/3.

표 2. 집단과 대상 수(1명, 8명)에 따른 연민심의 혼합 변량분석

변량원	<i>SS</i>	<i>df</i>	<i>MS</i>	<i>F</i>
집단간				
집단	545.509	1	545.509	14.689**
오차(집단)	1225.494	33	37.136	
집단내				
대상 수	28.672	1	28.672	2.590
대상 수*집단	6.870	1	6.870	.621
오차(대상 수)	365.297	33	11.07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집단과 대상 수(1명, 3명)에 따른 기부의도의 혼합 변량분석

변량원	<i>SS</i>	<i>df</i>	<i>MS</i>	<i>F</i>
집단간				
집단	33.079	1	33.079	8.417**
오차(집단)	129.692	33	3.930	
집단내				
대상 수	.002	1	.002	.006
대상 수*집단	.688	1	.688	1.924
오차(대상 수)	11.798	33	.358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집단과 대상 수(1명, 3명)에 따른 기부행동의 혼합 변량분석

변량원	SS	df	MS	F
집단간				
집단	264769428.8	1	264769428.8	3.282
오차(집단)	26620623717	33	80668555.07	
집단내				
대상 수	36088351.09	1	36088351.09	1.615
대상 수*집단	97669303.47	1	97669303.47	4.370*
오차(대상 수)	737505299.7	33	22348645.4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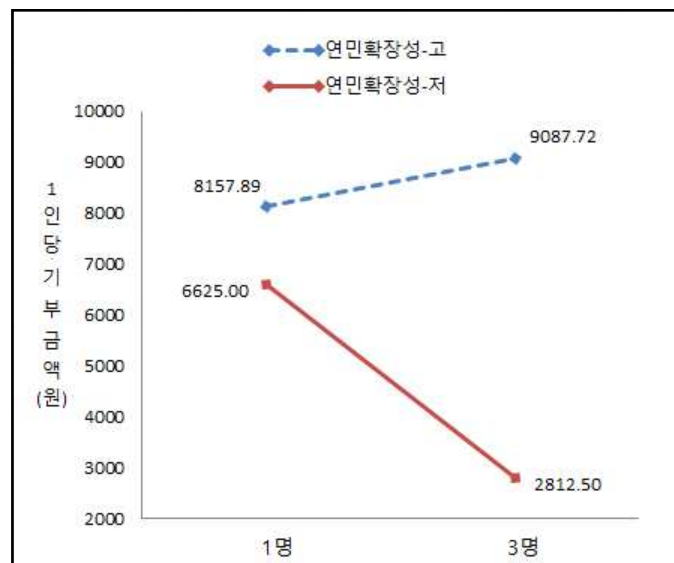


그림 1. 집단과 대상 수에 따른 기부행동의 상호작용

여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그래프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민확장성의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고확장성집단은 대상 수에 따른 기부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저확장성집단은 대상 수에 따른 기부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였다($F=5.20$, $p < .05$). 연민확장성에서 대상 수에 따른 기부행동의 단순

주효과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대상 수의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1명 조건에서는 집단에 따른 기부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3명 조건에서는 집단에 따른 기부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였다($F=4.64$, $p < .05$). 대상 수에서 집단에 따른 기부행동의 단순주효과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연민확장성에서 대상 수(1명, 3명)에 따른 기부행동의 단순주효과

변량원	SS	df	MS	F
대상 수@고확장성	8213450.29	1	8213450.3	.37
대상 수@저확장성	116281250.0	1	116281250	5.20*
오차	737505299.7	33	22348645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대상 수(1명, 3명)에서 집단에 따른 기부행동의 단순주효과

변량원	SS	df	MS	F
집단@1명	20409398.50	1	20409398	.70
오차	966276315.8	33	29281100	
집단@3명	34202933.8	1	34202933.4	4.64*
오차	2433291301	33	73736100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연민확장성이 연민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 참가자 271명을 대상으로 아주연민사랑 척도 친지판과 일반인판을 실시하여, 총 2집단(고확장성, 저확장성)을 구성하였다. 두 집단을 대상으로 연민붕괴 실험을 실시하여, 1명과 다수에 대한 연민심, 기부의도, 기부행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확장성 집단과 저확장성 집단 모두 연민심과 기부의도에서 1명과 다수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 모두 1명과 다수에게 비슷한 연민심을 느끼고 기부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연민심과 기부의도에서 연민붕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

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Kogut & Ritov, 2005; Cameron & Payne, 2011; Västfjäll, Slovic, Mayorga, & Peters, 2014)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연민심, 기부의도에서 연민붕괴가 발생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대상 수를 집단간 변인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민붕괴는 개인내 심리과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수를 집단내 변인으로 설계하여 연민심과 기부의도에서는 연민붕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연구결과 모든 집단에서 연민심과 기부의도에서는 연민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이 1명이든 다수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연민심을 느끼며,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상 수에 따른 기부행동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고확장성 집단은 1명에 비해 다수에 대한 기부금액이 감소하지 않았다. 즉, 고확장성 집단은 기부행동에서 1명과 다수 간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저확장성 집단은 1명에 비해 다수에 대한 기부금액이 감소하였다. 즉, 저확장성 집단은 기부행동에서 1명과 다수 간의 차이가 있었다. 고확장성 집단은 재정적인 부담이 큰 상황(3명에게 기부)에서도 도와주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면 저확장성 집단은 재정적인 부담이 큰 상황(3명에게 기부)에서는 덜 도와주려는 경향을 보였다. 즉 고확장성 집단은 누군가를 도울 때 행동의 결과인 비용에 덜 민감하며, 저확장성 집단은 고확장성 집단에 비해 행동의 결과인 비용에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고확장성 집단이 저확장성 집단에 비해 비용에 덜 민감한 이유는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나와 관계가 없고 다수일 지라도 자신의 이익 보다는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비용에 덜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확장성을 의미하는 참된 연민이 기부행동의 연민붕괴를 억제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확장성을 의미하는 참된 연민이 기부행동의 연민붕괴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임을 밝혔다. 선행연구들은 연민붕괴의 원인만을 다뤘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민붕괴를 막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둘째, 척도를 이용하여 연민확장성에 따라 연민을 구분하려는 시

도를 하였다. 참된 연민과 일반적인 연민은 문헌에서만 구분되어 있고, 직접적인 측정을 통해 구분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민붕괴 선행연구들의 실험설계를 보완하여 대상 수 변인을 집단내 변인으로 설계함으로써, 연민붕괴가 발생하는 것은 연민심, 기부의도가 아니라 기부행동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는 본 연구의 실험설계 및 가설이 사람들의 실제 심리과정을 잘 반영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실제 이타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를 밝혔다. 참가자 선별 당시 아주연민사랑척도 친지판과 일반인판으로 연민확장성을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아주연민사랑척도는 실제 이타행동을 예측해주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주연민사랑척도 친지판 점수와 일반인판 점수로 연민확장성을 구분하였지만,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타당화가 미비한 상태이다. 향후 구분 기준의 타당화 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요한 종속변수로 다룬 기부행동에는 연민 이외에 공감능력과 같은 개인차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를 다루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요 독립변수로 다루거나 또는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민확장성을 늘리기 위한 훈련이나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루는 연구를 보완함으로써 연민확장성과 연민붕괴의 관계에 대한 더욱 신뢰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학생 표본이라는 한계를 넘는 다양한 표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완석, 신강현 (2014). 아주 연민사랑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407-420.
- 박도현, 김완석 (2015). 아주 사무량심 척도 (AFIS)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821-838.
- 안성두 (2011). 불교에서의 행복에 이르는 길. *동서사상*, 11, 51-78.
- 이고은 (2013). 동정심의 발현에서 대상 수와 지각된 세력의 효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훈석, 이고은, 어현 (2012). *성균관대학교 미발표 연구 논문*.
- Buddhaghosa (2004). *청정도론 [Visuddhimagga]*. (대림스님 역).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원전은 5세기경 출판).
- Cameron, C. D., & Payne, B. K. (2011). Escaping affect: how motivated emotion regulation creates insensitivity to mass suffe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1), 1.
- Dalai Lama (2002). *How to Practice: The Way to a Meaningful Life*. New York: Atria Books.
- Gilbert, P. (2005). Compassion and cruelty: A biosocial approach. In P. Gilbert (Ed.), *Compassion: Conceptualisations, Research and Use in Psychotherapy*(9-73). New York: Routledge.
- Goetz, J. L., Keltner, D., & Simon-Thomas, E. (2010). Compassion: An evolutionary analysis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6(3), 351.
- Hamilton, D. L., & Sherman, S. J. (1996). Perceiving persons and groups. *Psychological Review*, 103(2), 336.
- Kogut, T., & Ritov, I. (2005). The “identified victim” effect: An identified group, or just a single individual?.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8(3), 157-16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Shaw, L. L., Batson, C. D., & Todd, R. M. (1994). Empathy avoidance: Forestalling feeling for another in order to escape the motivational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5), 879.
- Slovic, P. (2007). “If I look at the mass I will never act”: Psychic numbing and genocide.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2(2), 79-95.
- Small, D. A., Loewenstein, G., & Slovic, P. (2007). Sympathy and callousness: The impact of deliberative thought on donations to identifiable and statistical victim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2(2), 143-153.
- Sprecher, S., & Fehr, B. (2005). Compassionate love for close others and human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5), 629-651.
- Västfjäll, D., Slovic, P., Mayorga, M., & Peters, E. (2014). Compassion fade: Affect and charity are greatest for a single child in need. *PLoS one*, 9(6), e100115.

투고일자 : 2018. 2. 02.

최종 게재확정일자 : 2018. 2. 26.

The Effects of Compassion Extendability on the Collapse of Compassion

Na Ra Lee

Wan-Suk G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Compassion extendability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the object of compassion extends beyond a narrow object such as a family to another person or being that does not know it well. Compassion collapse is a phenomenon in which compassionate mind, help intention, and helping behavior decrease as the object of compassion increases. In this study, we tried to show that this compassion collapse can be affected by compassion extendability. Among the college students with high level of compassion, they were composed of high and low compassion extendability groups, and they were tested to measure compassionate mind, helping intention, and help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object of companions (1, 8). As a result, there was no difference in sympathy and donation inten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mpassion objects in both groups. However, in the case of donation behavior, collapse of compassion by the number of compassion objects occurred in the low extendability group, but not in the high extendability group. This result suggests that psychological compassion and intention to help are less congruent with help behavior among people who's compassion extendability is low, but not in case of high compassion extendability people. And more. It is suggested that the training like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meditation which extends the object of compassion may suppress the collapse of compassion in the action. Finall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ompassion, compassion extendability, collapse of compassion, compassionate mind, help intention, altruistic behavior